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 미국의 83%”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85명 청와대 개방에 무리하게 동원”

기술격차는 3년...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분야 예산 등 전폭 지원 통해 기술격차 시급히 축소해야”

이상기상 발생 기후변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급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버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에서 44만 7,000ha(6%)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현재 생산성 100%인 버의 경우 2000년 48%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사라지는 생물종은 2만5,000에서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사라지는 생물종은 2만5,000에서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평균 3.1일간

민주 김윤덕 의원 “졸속 개방으로 업무부담 커져

사무에 큰 차질... 운영 관리권 문제부터 매듭져야”

청와대 개방에 따른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원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지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서 관광협력 토대 마련

조봉업 행정부지사, 노르망디 광역도 등 지자체 찾아 전북 서해안·새만금권 관광여건 변화 선제 대응 나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프랑스 관련 지자체와 관광협력 추진 토대 마련, 서해안·새만금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변개발 시시점 착안, 내년 개최를 앞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거길 확충 기차여행의 확산 등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걷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충, 장애인에 대한 관광시설 개선 및 서비스 제공 버스·트램 등 대중교통 확충,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시설 편의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파리 한국문화원장과 관광공사 파리지사장 면담에서는 한류(한옥, 한지, 한식 등)의 보급인 전북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프랑스와 유럽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하고, 2023 새만금 잼버리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신송법 사회공사의 면담에서 OECD 한국 대표부에서 OECD 회원국들에게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OECD 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사회공사는 우리 문화·한류의 세계 전파를 위해 잼버리 기간 중 외국인들의 우리 문화 체험 기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며, 음식·숙박 분야가 주업종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내년도 잼버리 기간중 우리 한류와 전라북도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더 도내 관광기반 확충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프랑스 관련 지자체와 관광협력 추진 토대 마련, 서해안·새만금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변개발 시시점 착안, 내년 개최를 앞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프랑스 관련 지자체와 관광협력 추진 토대 마련, 서해안·새만금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변개발 시시점 착안, 내년 개최를 앞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절, 경마장을 10분 이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고, 2010년 G3(프랑스, 독일, 러시아) 및 2011년 G8 정상회담 등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비이벤트 유치 및 개최로 사계절 내내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이에 우리 전북도 새만금에 장기적으로 G20, 한중일 정상회담 등 글로벌, 내셔널 정치·경제 비이벤트 유치를 위한 구상과 함께 관련 인프라를 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실감했다.

생말로서 관광장은, 1980년대 초반

65개 기초 지자체간 연합하여 설립한 관광전담기구를 통해 지역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건설, 마이스행사 유치, 개별관광객 관광을 지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랑모프시는 단순히 모래 언덕 밖에 없었던 황무지에서 프랑스 최고의 해안관광대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그랑모프는 30년간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일괄적인 정책 추진, 제도적 장치(특별법)가 성공요인이었다.

몽펠라에서 부시장은, 몽펠라에서는 자연·문화·역사라는 컨셉 하에 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특교세 41억 확보

고창 서해안 만수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1일 정읍과 고창 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 증축 4억원 △로코비리공원 유아숲 진입로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5건,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인양면 천원천 제방 포장공사 5억원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CCTV 설치) 5억원 △정읍시농 농공단지사면(옹벽) 정비공사 4억원 △수성·금봉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1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창 서해안 만수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특교세 확보를 통해 펌프 일체형 수문 및 협잡물 스크린 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간 집중호우 발생 시 고창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6억원 △상습침수 위험구간 현대화사업(온천관광지구) 5억원 △고창문화원 다목적 체험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더 낮은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원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구)서도역(미스터 선샤인 등) 우리마 영화 촬영지